

형제자매님들,

이번 주의 중점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. 우리가 기도하고, 이 구절들과 사역의 말씀들을 읽음으로 그분께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합니다. 헌신과 기도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참여하는 첫 관문입니다.

복가주 2017년 백일 기도 2주차: 헌신 - 근거, 동기, 목적

[매일의 말씀]

주일 - 근거(1): 값으로 사심

“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.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.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,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,” (계 5:9)

월요일 - 근거(2): 값으로 사심

“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.” (고전 6:20)

화요일 - 동기(1): 그리스도의 사랑

“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지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.” (출. 21:5하)

수요일 - 동기(2): 그리스도의 사랑

“그러므로 형제님들,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.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.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.” (롬 12:1)

목요일 - 목적(1): 주님께 의해 사용됨

“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.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.” (마 4:19)

금요일 - 목적(2): 주님을 위해 일함

“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..나를 사랑합니까?...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;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..나를 사랑합니까?...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.” (요 21:15하, 16하)

토요일 - 한마음 한 뜻 안에 있는 기도

“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...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.” (행 1:13상, 14상)

“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 떼같이 많아지게 하되.” (겔 36:37)

[매일의 읽기]

주일 - “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흘린 바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(벧전 1:19). 이 보배로운 피는 얼마나 큰 「대가」(고전 6:20)인가!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는 대가로 이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그분께 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.”(생명의 체험, 헌신)

월요일 - “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(요일 4:13)께서 우리 몸을 점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, 그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.”(고전 6:20, 각주 2)

화요일 - “참된 결혼 관계는 권리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사랑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.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므로 남편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”(생명의 체험, 헌신)

수요일 - “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비를 베푸셨는데,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, 부르시고, 구원하시고,...근거와 원동력이 되는 이 많은 자비로 말미암아 사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고 권유했습니다.”(롬 12:1, 각주 3)

목요일 - “성경을 보면, 어떤 것을 그 원래의 위치와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올려놓을 때면 언제나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...드리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 결코 그 자신의 유익과 누림을 위해 쓰여질 수 없게 됩니다.”(생명의 체험, 헌신)

금요일 - “주님은 베드로의 타고난 힘과 자기 과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, 그가 세 번이나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여 철저히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(요 18:17, 25, 27).” “여기에서 어린양들을 먹이는 것은 속 생명의 풍성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을 먹이려면,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.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” “목양은 양 떼 (요 10:14, 16), 즉 교회 (행 20:28)를 위한 것입니다;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계 있습니다(마 16:18).” (요21:15, 각주 1, 각주 4; 21:16, 각주 1)

토요일 - “군중들이나 큰 무리들은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그분께 어떤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. 주님의 움직이심은 다락방에 있던 이들, 눈이 열리고 마음이 만져진 바 된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. 이 소수의 사람들은 불타기 위해 다락방으로 왔고, 그들은 온 세상을 뒤집어놨습니다. 이 원칙은 오늘도 동일합니다. 세상을 뒤집고, 시대를 전환할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...여러분이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,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 해야 합니다. “주여, 나는 당신의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겠습니다.”(하늘에 속한 이상, 제 6 장 헌신의 이상)